

믿음과 율법

작사, 작곡 이영린
편곡 조문양

1. 2. 3. 4. 5. 6.

다만 어다 단로
그저 마그그이
습이지 습습법
없긴 하얗만 현
의여는 이은
들나 주지는 세
한하여 하하히
영단주 폐말친
율기만 을다 서
인연로 법됐게
원원이 의지법
구구입주 폐주
커이고고이인
지것다다명명
법그그계계

요요고다다고
어지하니 있
없되면 율법고
현안의 세법하
할이인게그수
수면들근하준
를하사육사겨
죄안천더제즐
만노를을서이
지일자법아들
하무한의잡민
선아범주양겨
이그을편건의
들다법이된주
명인의민지우
계민주잘폐의

고까니서도니
있니주켜어이
가납아지했준
수아받잘폐기
율은서을법의
진민에법의판
원은국의문심
구죽천그의대
만편만편되는
야이자하이있
어음한랑생고
민민행사희되
율기을을의행
님없뜻님가진
수함의수자금
예행주에십지

다오다다법다
니까니하니
습니습입원권
진되었것종아
을게혀릴기을
함하적알없법
사전히리함의
죄안판널법주
만이에을회인
로음속것일들
로민명그점사
공참계되일후
의로은자이라
가이뜻제명나
자함의의계를
십행주주십하